

기독교와 인격 교육

오 인 탁
(연세대학교)

〈 요약 〉

논문의 주제는 기독교와 인격교육이다. 인격교육의 기초는 기독교적 교육관과 인간관이다. 이를 교육의 형식 안으로 창조된 인간과 타락한 인간의 두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인격교육은 삶의 단계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삶의 단계에 따른 기독교 교육의 성격을 논의 하였다. 이상의 두 논의의 기초 위에서 기독교적 인격교육의 지평으로 일(노동)과 문화를 다루었다.

기독교적 인격교육은 생활과 일치하는 공동체 생활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사의 인격이 교육의 중심이 되며, 학생의 카리스마를 발견하고 양육하는 일이 교육의 지평이 된다.

I. 교육의 형식 안으로 창조된 인간

기독교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이다. 기독교는 성경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과 세계를 기독교인은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에 따라서 알고 있으며 믿고 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타락하였다. 타락은 창조되었을 때의 인간의 본래적 죄없음의 상실을, 인간 본성의 죄있는 상태로의 근본적 변질을 의미한다. 기독교적 인격교육은 바로 이러한 기독교적 인간관에 근거하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 말의 뜻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근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둘의 존재로, 다시 말하면 공동체

적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이룬 남자와 여자를 합하여 인간이다. 인간은 공동체적 삶의 형식 안에서 자아를 완전히 실현한다. 둘이라는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인간의 존재 형식의 기점이다.

둘째로, 인간은 자연을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이성(ratio)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

셋째로, 인간은 인간들 상호간에,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와,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언어(oratio) 능력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리하여 인간이 자연을 탐구하고 이름을 지음으로써 자연은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인간은 함께 사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얼굴을 마주대고 대화할 수 있는 인격적 관계를 갖게 되었다. 창조된,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존재로, 그러한 인격으로 확인된다. 인격적 존재인 인간은 언어로 세계를 재구성하여 인간의 삶의 세계로 삼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와 인간이 언어로 재구성한 세계는 다르며, 인간은 언어로 재구성한 세계를 삶의 세계로 살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끊임없이 세계를 확장해나가는 존재이다.

넷째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잘 갈무리하면서 살아가도록, 다시 말하면 행위(operatio) 능력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 인간은 행위의 능력으로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고, 생존에 필요한 먹을 거리와 입을 거리와 잘 거리를 장만하며, 자신과 가족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혈족 사회를 이루어 함께 살아간다.

이러한 다른 동물로 부터 구별되는,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속성과 함께 인간에게는 또 하나의 다른 속성이 부여되었으니, 그것은 한계내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두가지 한계를 설정해 주셨다. 하나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역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 설정은, 성경에 보면, 다만 따먹지 말뿐만 아니라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매우 엄격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神言)이므로, 신의 명령을 인간이 의심하거나 거부해선 절대로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 한계의 설정은 선악을 구별하며 진리를 창출하는 척도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생명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므로, 이 둘은 하나님의 소유요 능력이지 인간의 속성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넘보지 말도록 엄격하게

명령한 것이다. 인간은 이 두 나무가 인간의 삶의 세계의 중심에 있는 한, 이 두 나무를 볼 때마다 인간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임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둘은 동시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간에게 언제나 다시금 알도록 해주는 성례(聖例)가 된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동물로 부터 구별되어서 창조된 특별한 피조물이다. 이러한 기독교적 인간 이해를 종합해보면, 인간은 교육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교육”(I. Arsheim 1961, S.118f) 아래서만 바르게 설 수 있는 피조물로 드러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육은 창조 질서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에로의 교육이다. 다시 말하면 창조의 질서를 보전하고, 정의와 자유로 확인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에로의 교육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였을 때에 인간을 교육의 형식 안으로 창조하였다. 태초에 교육이 있었다. 그리고 교육은 곧 삶이었다. 이러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기초한 인간관이 한 민족의 종교적 체험으로 승화된 결과를 우리는 희브리 민족의 다음과 같은 고백에서 본다: “여호와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이사야 40: 31).

II. 타락한 인간

인간은 또한 타락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신적인 미와 선의 문화를 이루며 생존할 수 있는 존재였으나, 타락한 결과로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져 있던 본래성을 상실하였다. 그리하여 신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인간과 세계와 신을 이해하고 문화를 창조하기 시작하였다. 기독교는 바로 이 점으로부터 범죄할 수 밖에 없는 인간의 악한 속성과 멸망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종교적 참회와 중생의 길을 가르치고 있다. 원죄의 결과로 하나님으로 부터 인간은 삶의 고통과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추방과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았다. 그리하여 죄악과 고생과 멸망으로 확인되는 현세에서의 삶과 중생과 속죄와 구원의 복음 신앙으로 확인되는 내세에서의 영원한 삶이라는 양면성이 기독교의 가르침의 내용이요 인간 이해의 근본으로 모든 기독교인의 마음에 자리잡

게 되었다. 그리하여 모든 인간은 멸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이 기독교 교회의 절대적 사명이 되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다만 인간과 우주를 섭리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동시에 인간을 교육하는 하나님으로, 인간을 교육하여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으로 가르치고 있다. 바로 이점에 기독교 교육의 본질이 근거하고 있다.

III. 삶의 단계에 따른 교육

인간은 누구나 그 자신의 삶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젖먹이, 유아, 아동, 소년과 청년, 성인과 노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고 있다. 인간은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는 다만 생물학적이고 사회학적인 확인일 뿐만 아니라, 신학적 교육학적으로도 대단히 의미있는 확인이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관계와 위치는 인간의 만들어진 상태와의 연관 안에서 파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기독교 교육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다.

첫째로, 인간의 모든 연령기는 그 연령기에 있어서 고유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어떤 한 시기에서 특수하게 확인되는 방법과 형식을 절대적 규범으로 만들고 이를 통하여 다른 삶의 시기와 단계들을 측정하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된다. 우리는 그러한 잘못을 범할 위험에 교육적으로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를 인류의 역사에서 늘 발견하곤 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인간의 삶의 역사는 다만 성장과 발달로만 확인되는 과정이 아니다. 인간의 삶의 역사는 동시에 위기와 단절로 확인되는 과정이다. 신체적 형성이, 정신적 영적 자아 정체성, 사회적 관계와 역할이 언제나 간단없는 변천 아래 놓여 있다. 그래서 어떤 때엔 실존적 심연에 까지 이르고 이것이 자신의 자아상과 삶의 확신을 송두리채로 흔들어서 식음을 전폐하게 하기도 하고 자살로 이어지게 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위기의 시기엔, 특히 어린이, 젊은이, 어른, 늙은이 할것없이 누구나 언제든지 겪게되는 자아 정체성의 위기와 삶의 의미 상실의 위기에 직면하여, 이 순간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적 배려와 동반이 있어야 한다.

셋째로, 개인의 신앙과 하나님 체험은 유아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발달 단계

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다. 신앙과 하나님 체험은 어른의 입장에서부터 일방적으로 강요되고 주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기독교 공통적인 신앙과 생활과 교육과 축제와 애도와 이별과 위로의 형식들은 이러한 발달 단계적 특수성에 관한 이해를 통하여서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게 매개되고 인식되고 실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인격을 도야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은 성서의 가르침을 인간의 인간학적 발생 조건들과 사회 문화적 전제 조건들의 연결 구조 안에서 파악하고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다.

IV. 기독교적 인격 교육의 지평: 일

기독교는 일을 중요시하는 종교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일의 의미를 하나님을 닮은 꼴로서의 인간의 자아 실현의 본래성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직업(Beruf)을 소명(Berufung)으로 이해하였다. 다시 말하면 직업은 인간 개개인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는 곳에 응답하고 서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으며, 사회에 유용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일을 기독교 교육은 교육의 본질적 과제로 삼고 있다. 일은 삶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삶을 완성한다. 인간은 일함으로써 교육 가능하고 교육 필연적인 존재로써의 인간의 본질을 탁월한 경지에 까지 실현해 간다. 일하지 않으면 인간은 이미 갖고 있는 능력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인 본질까지도 변질되고 더 나아가서 상실하게 되고 만다. 그리하여 자아 소외의 걸음걸이를 걷게 되며, 결국에는 자아의 상실을 체험하게 된다. 자아의 자리에 어떤 다른, 비인간적이고 낯선 것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엔 이미 의미있는 삶은 없다. 그래서 성경은 일하지 않는 것을 달란트를 땅 속에 파묻는 것으로 비유하였다. 일하지 않음으로써 상실된 능력은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다. 일하지 않는 삶을 사는 동안에 인간의 내면은 변질된다.

일은 인간의 잠재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게 한다. 인간의 탐구하고 대화하며 상황을 타개하는 능력들 뿐만 아니라, 신체적, 감성적, 지성적, 그리고 영성적 능력들 모두가 일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자극을 받고 개발된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고 또 넘어지면 또 다시 시도하는 간단없는 연습이 돌쟁이를 걷게 한다. 그런가 하면, 어른도 몇일만 걷지 않으면 다리가 힘이 없고 후들 후들 떨어진다. 농사를 짓던 사람이 직접 농사하는 대신에 소작을 주고 감독하며 수확의 큰 부분을 챙기는 맛에 익숙해지면, 그는 일하지 않고 놀면서 먹고 즐기는 삶으로 젖어들게 되며,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농사짓던 지식과 솜씨를 잃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그는 점점 더 돈에 매달리게 되고, 중국에는 자신의 영혼을 재물의 노예로 만들고 만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노동의 분석으로부터 끌어낸 소외(Entfremdung)와 외화(Entäußerung)의 현상을 기독교는 성경에 근거하여 경고하고 있다.

일하는 인간은 건강할 뿐만 아니라 건전하다. 일하는 청소년 가운데엔 범죄 청소년이 거의 없다(청소년의 생활 및 여가 실태 조사, 1987). 일 가운데서도 자연 직접적인 일을 하는 인간이 자연 소외적인 일을 하는 인간들 보다 더 건강하고 건전하다. 다시 말하면, 직접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이 목축을 하고 고기를 잡으며 사는 사람들 보다 더 건강하다. 목축을 하고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도구와 신과 옷을 만드는 사람들 보다 더 건강하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아는대로 가인은 농부요 아벨은 목자였다. 가인은 아벨보다 언제나 이미 하나님에 대한 더욱 깊은 외경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 그렇지 못하였다.

우리는 일과 신체적, 정서적, 지적, 영적 성숙의 관계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농부; 목동, 어부; 목수, 석공; 사냥꾼; 신기로 쟁이, 대장 쟁이 같은 수공업자들; 군인들; 상인들; 군수, 시장 같은 관리하고 통치하는 직에 있는 사람들 이러한 지극히 임의적으로 만들어 본 목록은 그러나 뒤로 갈수록 자연 소외적이고 생활과 노동의 분리가 심한 일의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 소외의 거리는 인간 개개인의 자아 소외와 외화의 거리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의사, 변호사, 교사, 목사 같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일을 공통적으로 보다 소외적인 일을 하고 있는 직종에 속하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종교적이어야 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종교성이 언제나 용이하게 흔들리고 변질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떤 교육과 훈련의 장치가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직자에게 경건(pietas)과 금욕(askesis)을 강조하고 있다.

기독교적 인격은 구체적인 이 세상에서 삶의 질을 구현한 사람이다. 의미있고, 행복하며, 충만한 삶의 실현은 오늘날 처럼 삶과 일의 분리가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여가의 선용이 문제가 되며, 한계를 모르는 직업의 전문화와 세분화가 전개되는 세

계에서 대단히 어려워졌다. 그러므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일을 즐길 수 있는 능력에로 인간을 교육하는 일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만약에 시지프스가 영원히 반복되는 형벌 아래서도 행복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로운 영혼이 삶을 살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육체 노동자가 정신 노동자 보다 모든 면에 있어서 언제나 이미 더 성숙할 수 있는 조건 아래서 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경종이 된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소유하고 있고, 보다 많은 수입이 있으며,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고 해서 그의 삶의 질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 무지하고 가난한 영혼이 의외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중세의 수도원에서는 금욕과 경건 훈련의 중심에 노동을 두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에로의 교육을 통하여 피하는 삶의 질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확인된다.

일은 다만 인간의 영적 성숙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가 아니다. 일은 동시에 인간의 지적 성숙도 온전하게 하는 통로이다. 일에 의하여 동반되지 않은 지식과 기술의 습득은 인간을 몸과 가슴과 머리가 따로따로 돌아가는 괴물로 만든다. 그래서 페스탈로찌는 그의 기독교적 신앙으로부터 노작 교육을 통하여 머리(Haupt)와 가슴(Herz)과 손(Hand)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3H 교육을 강조하였다. 일은 이렇게 지덕체(知德體)의 온전한 개발을, 인간 개개인의 완전한 자아를, 다시 말하면, 미와 선의 조화를 이룬 인격을 실현하도록 한다.

V. 기독교적 인격 교육의 지평: 문화

기독교적 인격 교육은 학생들이 기독교 문화를 잘 알도록 하고, 기독교 문화를 살도록 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문화 교육은 문화를 단지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문화를 “살아가는” 교육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언제나 이미 문화 안으로 태어나서 문화를 통하여 성장하는 어린이들을, 그저 무의식적으로 문화를 호흡하는 상태에서 의식을 가지고 문화를 호흡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렇게 의식적이 된 문화 생활을 통하여 어린이들은 철저한 의미에서 문화인이 된다.

기독교는 가정을 대단히 중요시한다.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신생아는 이미

모태에서 부터, 그리고 태어나면서 어머니의 품안에서 교육받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가정을 그들의 종교 교육의 중심으로 삼았다(신명기 6: 4-9). 하나님 중심으로가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세계를 보고 삶을 구성한 그리스 민족은 학교를 발명하였다. 어린이들이 가정에서, 어머니의 집으로부터, 부모로부터, 그들의 익숙한 삶의 환경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학교 안으로 불러드려지면서 교육은 시작된다. 그러나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교육은 정 반대로 거리에서 뛰어노는 어린이를 가정 안으로 불러들임으로써 비로서 시작된다. 가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교육의 지극히 자연스럽고 이상적인 원형(Archetype)이요 원기관(Urorgan)이다.

문화 교육은 또한 사회와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간직하여온 대가족 문화, 지금 대다수의 시민들이 겪고 있는 핵가족 문화와 그 안에서 갖게되는 어려움들, 부모와 자식, 형제와 친척의 인간 관계들, 성생활 문화, 경조사를 비롯한 여러가지 삶의 상황에 따른 예의 범절과 풍속의 문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원초적이요 원칙적인 존중, 이런 것들이 모두 사회의 영역에서 우리가 얼핏 생각할 수 있는 기독교적 문화의 내용들이다.

그리고 기독교적 환경의 교육이 있다. 한마디로 “창조 질서의 보존”이라는 말로 강조되는 환경의 교육은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생명의 터전인 지구와 우주를 더이상 파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대로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 그리고 이러한 보존의 과제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인식하고 보수하는 가치관과 태도를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적 정치 교육이 있다. 정치란 한마디로 관계의 문화이다.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공존과 공유의 관계로, 자유와 평등의 관계로, 정의와 형제애의 관계로 만들어가거나, 독점과 착취와 억압의 관계로, 불평등과 구속의 관계로, 계급과 지배의 관계로 만들어감에 따라서 우리는 정치를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면서 또는 하나님 없이 해나갈 수 있다. 기독교적 정치 문화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펼치는 인간 관계의 문화이다. 그것은 세상에서의 상하와 주종이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변화되는 문화이다. 그리하여 에큐메니칼한 신앙과 신조로, 너와 전체 중심으로, 상이한 언어와 지역과 계층을 그 상이성에 있어서 인정하면서, 인권의 절대적 동등권 인정의 원리에 입각하여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가름대를 만들지 않은 곳에서 인간

이 가름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기독교적 예술 교육이 있다. 예술의 영역은 일반적으로 문화의 본질 영역이요 대명사로 이해되고 있으나, 내 생각에는 생활 문화와 환경 문화와 정치 문화의, 그리고 그러한 문화적 교육의 바탕 위에서 예술 문화의 영역이 비로소 바람직하게 꽃피어날 수 있다. 예술은 세계에 대한 주관적 미적 묘사의 결과이다. 음악, 미술, 무용, 조각, 건축, 시문학 등,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말과 글을, 소리와 노래를, 춤과 울동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많은 형식들을 가지고 있다. 이 형식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생활을 풍요롭게 가꾼다. 따라서 우리는 예술의 역사를 통하여 인류가 창조한 풍부한 예술의 세계 안으로 학생들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심미관을 심어주고 심미안(審美眼)을 열어주어, 우리 특수적인 기독교 예술의 세계를 가꾸어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인간의 삶의 의미는 외부로부터 권위있는 규범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꾸려가고 있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지고 획득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독교적 문화 교육을 통하여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온갖 위기들에 직면하여,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도움은 문화와 문화가 가지고 있는 상징들, 가치의 체계들, 행동의 목록들, 의식과 형식들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주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독교적 문화 교육은 기독교적 인격 교육의 기본 지평이요 범주이다.

VI. 맺는 말

기독교적 인격 교육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독교의 신관에 기초한 인간 이해와 세계 이해의 테두리 안에서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접근되었다. 기독교적 인격 교육의 다양한 표현과 시도 가운데서 이러한 모든 다양성과 상이성을 포용하고 있는 단일성이 있다. 이를 종합하면 기독교적 인격 교육의 기본 원리들이 된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독교적 인격 교육은 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삶이 도야한다(Das Leben bildet). 그러므로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 교사와 학생 사이에 상호 교호적인 교수 학

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론과 교사의 생활과 교육이 일치하여야 한다. 불일치는 어린이와 학생에게 머리로 아는 교육과 가슴으로 느껴서 손으로 행하는 교육 사이를 가르는 눈을 길러주고, 이중적 인격을 형성하게 한다.

그러므로 교육은 원칙적으로 생활과 교육의 일치가 가능한 형식과 방법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초대 교회의 시대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 까지 교회에 의한 학교 교육은 원칙적으로 기숙 학교 교육이었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생활하면서 교육하고 학습하는 24시간 교육이었다. 이러한 교육은 학교가 언제나 동시에 생활하며, 생활 속에서 교육하는 교육의 공동체로 확인되어야 함을 말한다.

좋은 교사의 손에서 좋은 교육은 이루어진다. 영원한 교사의 표상은 하나님이다. 기독교 교육은 인간을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노력을 통하여 발전하여 왔다. 그 구체적인 한 예를 들면, 모든 교수 학습의 원리를 발견하고 정립하는 가장 합리적인 접근 방법을 사람들이 자연의 질서를 모델로 삼아서 시도하여 온 것이다. 이를 우리는 코메네우스, 루소, 페스탈로지 같은 교육의 이론과 실천의 큰 봉우리들에서 확인하게 된다.

기독교적 인격 교육은 카리스마 교육이다. 카리스마란 성령이 인간 개개인에게 부여한 은사를 의미한다. 기독교 신앙은 한 인간의 탄생을 남녀간의 생물학적 번식으로만 보지 않고, 언제나 동시에 모든 탄생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의 탄생은 하나 하나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인간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각자가 어떤 특별한 카리스마를 부여받았다고 본다. 그러므로 교육의 본질적 과제는 학생들 개개인에게 아직 실현되지 않고 감추어져 있는 은사를 찾아내어 이를 실현하게 하는 일이다.

인간 개개인에게 주어져 있는 은사, 카리스마, 달란트, 소질을 찾아내서 이를 수월의 수준에 까지 끌어올리는 일이 곧 교육이다. 이러한 개인의 고유한 자아 실현을 통하여 학생은 기독교적 인격을 도야하고, 직업을 수행하며, 이를 통하여 이웃에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된다. 그래서 직업은 곧 소명이다. 이러한 교육 이해는 학생들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거부한다. 그래서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은 모두 학생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석차를 매기는 관행을 모른다.

기독교적 인격 교육은 인격의 원칙적 동등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상

대방의 상이성을 그 상이성에 있어서 인정하는 일, 물지배적이고 개방적으로 대화하는 일, 시험하는 대신에 호소하고 충고하는 말을 던지는 일, 집단적으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양육하는 일, 분석 보다는 종합을 우선하며 비판 보다는 이해와 용서를 우선하는 일, 가까운 것으로부터 먼 것으로 나가는 원근(遠近)의 교육 방법을 고집하는 일 등이 이러한 원리로 부터 구체화한 교육의 지혜이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기독교와 인격 교육의 문제를 정리해 보았다. 이상의 지극히 간단한 정리를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의 교육 사상의 큰 흐름들이 모두 기독교적 교육 이론과 실천의 토양 위에서 성장한 나무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헤르바르트의 인격 교육, 구아르디니나 부버의 대화의 교육 사상, 볼르노우의 교육 인간학 같은 보다 사변적인 접근이나, 니일의 비권위주의적 교육, 발도르프 학교의 열린 학교 운동 같은 보다 실천적인 접근이 다 그러하다.

모든 인격 교육은 근본적으로 전체적이며 전인적인 카테고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교육은 점점 더 심하게 이러한 전체적이며 전인적인 카테고리를 교육학의 학문적 반성의 대상으로 삼고 교육 실천의 방법과 통로로 삼기를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21세기와 정보통신망으로 압축되는 미래학을 주도하는 관점은 인격 교육의 지평을 점점 더 지혜로부터 과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여러 종교가 인격 교육을 함께 정리하고 반성하는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다.

<참고문헌>

성경.

오인택(1994). 고대 그리스의 교육 사상. 서울: 종로서적.

오인택(1984). 기독교 교육. 서울: 종로서적.

전풍자·강소연(1987). 청소년의 생활 및 여가 실태조사. 서울: YWCA.

Asheim, Ivar(1961). Glaube und Erziehung bei Luther.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s Verhältnisses von Theologie und Pädagogik. Heidelberg.

Ballauff, Theodor & Klaus, Schaller(1969). *Pädagogik. Eine Geschichte der Bildung und Erziehung. 3 Bände.* München.

Comenius, Johann Amos(1967). *Pampaedia.* Heidelberg.

Hamman, Adalbert(1985). *Die ersten Christen.* Stuttgart.

Nipkow, Karl Ernst(1990). *Bildung als Lebensbegleitung und Erneuerung. Kirchliche Bildungsverantwortung in Gemeinde, Schule und Gesellschaft. Gütersloh.*3